**마1001 Note**

**◆ 도우미: 권능의 4종류 - 바니 존스의 '말의 권세'에서**

권능(권세와 능력)에는 서로 다른 네 종류가 있습니다.

1.크라토스(Kratos);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능력 혹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 능력이 모두 크라토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다스리는 권능입니다.

2.두나미스(Dunamis) ;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두나미스는 권능과 힘,에너지, 폭발적이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3.이스쿠스(Ischus) ;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풀어지는 무제한적인 능력입니다,

4.엑소시아(Exousia); 위임 받은 권능입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고 위임 받은 분야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엑소시아 능력은 우리에게 권위와 사법권, 자유롭게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자질, 특권, 영향력, 권한, 의무와 규제로부터의 자유, 지배력, 위임된 영향력을 부여해 줍니다.

사단도 엑소시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사단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권세(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답입니다! / 더치 쉬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면 왜 전쟁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능력을 제거하시고 무장해제시켜 그의 일을 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쳐부수면서 실제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때 찾을 수 있다.

사단의 파멸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의 머리됨 혹은 권세가 깨어진 것을 말한다.

성경 어디에도 그분이 우리를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건져내셨다고 말한 곳이 없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그의 엑수시아, 즉 그의 권세로부터, 혹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권리(권세)로부터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골0113.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위임 받은 권능, 엑수시아:능력,특권,힘,재능,지배,영향력)으로부터 건저내셨으며(뤼오마이:돌진하다,끌어내다,구출하다,구원하다,구하다,건저내다), 또 우리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구약: 말쿠트, 신약: 바실레이아: 왕국)으로 옮기셨느니라(메디스테미:운반하다,멀리 옮기다,면직시키다,바꾸다,유혹하다,내놓다,번역하다,돌리다).

눅10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뱀들과 전갈들 위에서 밟으며, 적의 모든 권능(뒤나미스: 힘,능력,권능,권력,세력)을 제압하는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자유,군주,통제의 상징,영향력,권위,사법권,권리)를 주노니, 아무것도 어떤 방법들에 의해 너희를 해치지 못하느니라.

골0215. 그리고 방백(아르케:시작,우두머리,모퉁이,첫자리,방백,권세,주권,원리,통치)들과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들을 약탈하신(아페크뒤오마이:전적으로 빼앗다,약탈하다,망치다,버리다) 후에, 십자가 안에서 그들에게 개선(凱旋)행진 하셔서(드리암뷰오: 환호의 행진을 하다,정복하다,승리를 얻다,승리하다), 그분께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벗어버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펙두오마이'로서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들을 떨쳐버리셨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분이 그들을 채찍으로 내리치셨다."는 뜻의 신학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는 결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권세, 즉 사단이 아담을 통해 획득한 권세가 문제였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되찾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요

사단의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었다.

그분은 아담이 사단에게, 뱀에게 빼앗긴 권세를 되찾고

이 땅에 대한 그의 머리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오셨다.

사단은 옛날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능력과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벧전 5:8)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 달리, 그는 아직도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전히 "불화살"(엡 6:16)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면, 시험삼아 당신의 갑옷을 입지 말고 다녀 보라.

사단이 상실한 것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 자신의 능력을 행사할 권리(권세)였다.

그렇지만, 사단은 도둑이요 거짓의 아비요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사단과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들 것이다.

권세가 문제이다. 능력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세는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다.

중요한 열쇠는 권세이지, 결코 능력이 아니다.

마1618. 그리고 내가 네게 또한 이를 이르노니 곧, 너는 베드로(페트로스: 바위,사도이름 베드로,둥근 돌,옥석 /아람어: 게바)라.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라. 그리고 지옥(하데스:눈에 보이지 않는,하데스,죽은 영혼의 거처,죽은 상태,무덤,지옥)의 문들이 그것에 대해 능가하지(카티오오,카티스퀴오: 능가하다,보다 우세하다) 못하느니라.

마1619. 그리고 내가 네게 천국왕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니라. 네가 땅에서 묶는 무엇이든 천국에서 묶이며 또 네가 땅에서 푸는(뤼오:풀어주다,깨뜨리다,파괴하다,풀다,놓다,융해하다,놓아주다) 무엇이든 천국에서 풀리느니라.

Ω마2818. 이에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이르시되, 모든 권능(위임받은 권능, 엑수시아: 능력, 특권, 힘, 재능, 지배, 영향력)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내게 주어졌느니라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이름의 권위(오노마:이름,권위)와 아들의 이름의 권위와 성령의 이름의 권위로 그들에게 침례(잠겨 하나로 됨)를 주면서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②,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마데튜오:(자동사)학생이 되다,(타동사)제자를 만들다,학자로 등록하다,교훈하다,가르치다,제자가 되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더치 쉬츠

첨부

눅0708. 이는, 내 밑에 군병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나 역시 권위 아래에 놓여진 사람임이라, 그리고 내가 한 사람에게 "가라" 말하면, 그가 가나이다, 또 다른 이에게 "오라" 말하면, 그가 오나이다, 그리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말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Ω눅0709. 예수께서 이들의 것들을 들으시고, 그분께서 그에게 놀라시니라, 그리고 돌아서시어, 그분을 따라오던 백성에게 이르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느니라.